

# 광주, 공시지가 폭등에 임대료 상승 우려

### 중정역 개발·에너지밸리 산단 영향 광주 상승률 10.71% 정부 표준지 공시가 공개...전남도 6.28% 올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한데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지가도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커=국토교통부가 12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광주 상승률은 10.7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상승률(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평균 상승률(8.49%)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지역 표준지 상승률은 ▲2010년 0.88% ▲2011년 1.67% ▲2012년 0.72% ▲2013년 0.58% ▲2014년 1.40% ▲2015년 3.00% ▲2016년 4.35% ▲2017년 5.21% ▲2018년 7.89% 등으로 10%

를 넘는 적은 지난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이전에도 비스해 2009년(-1.02%), 2008년(6.22%), 2006년(3.37%), 2005년(3.77%), 2004년(7.59%) 등 10%를 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금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열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심재개발, 송정동 상권 활성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 등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남도 전년도 상승률(5.42%)보다 오른 6.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서울(17.75%), 대구(9.18%) 다음으로 높은 8.71%를 기록했고 전남도 4.50%로 전년도(3.50%)보다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 서민들 부담도 이어지나-정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18	6.02	6.89	11.25	8.26	4.07	7.89	3.82	8.22	9.3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18	3.54	7.68	5.55	4.71	5.13	5.42	6.56	7.01	16.45

과 관련,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 보유세 등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내세워 임대료를 올리거나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지 않

겠냐는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에 앞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지가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지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5.22% 상승, 7대 특·광역시 중 서울(9.36%) 다음으로 높았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지가도 광주는 5.44% 뛰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8.51%), 대구(8.40%), 인천(6.98%) 다음으로 상승률이 컸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꾀하며 모니터링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0.47 (+9.74)	↑ 금리(국고채 3년) 1.80 (+0.02)
↓ 코스닥 730.58 (-2.89)	↓ 환율(USD) 1123.90 (-0.80)

##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전 치열

30년만에 첫 경선방식  
현회장-부회장 맞대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의 새 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치열하다. 광주시회가 설립된 지 30년 만에 처음 경선방식으로 치러지는데다, 광주시회를 이끌고 있는 현회장과 부회장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건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려는 커넥, 협회 임원진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갈등을 빚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등에 따르면 제 12대 회장 선거에 이권수(59) 고윤건설 대표와 김영주(59) ㈜태호종합건설 대표가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다.

12대 회장 후보 등록이 오는 3월 5일 시작되는 만큼 다른 후보자가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들 두 후보간 대결로 압축하는 분위기다.

이렇게되면 광주시회가 설립된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회장이 경선을 통해 뽑히게 된다.

광주시회에서는 회원들간 선호도 조사를 거쳐 회장 후보자를 결정했던 방식을 제외하면 여태껏 단 한 차례도 경선을 치르지 않고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해왔다. 이 때문에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권수 현 회장은 침체에 빠져있는 광주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았으며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영주 부회장은 회원사보다 비회원사가 많은 비대칭적 상황을 개선, 협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건설업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오는 3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12대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조합장선거 공정하게 치릅시다" 실천 결의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12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본부 2중 대강당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임후보예정자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공안부 홍동기 검사가 참석해 조합장선거 유의사항과 문무일 경찰청장의 불법선거 엄정 대응방침을 알리며 금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남검사국(국장 임삼세)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2차에 걸쳐 관내 146개 농축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 나섰고, 12일부터 타 시도 검사국과 교차해 실시하는 3차 점검을 통해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나서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난해 4대 금융그룹 연 순이익 10조 '사상 최대'

지난해에도 4대 금융그룹에 연간 순이익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조4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7059억원) 증가했다.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실적이 1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이 지난해 3조68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2년 연속 3조원대 실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단, 전년 대비로는 7.3% 줄었다.

이와 달리 신한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로 8.2% 늘어난 3조1567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9년간 차지했던 1위 자리를 2017년 KB금융에 내줬다가 1년 만에 탈환했다.

우리은행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192억원으로 전년 대비로 33.5%나 급증했다.

2006년 2조290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이지만 2006년 당시 출자전환 주식 매각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2조2402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역시 2005년 하나금융 설립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 10.0% 증가했다.

/연합뉴스

## 대부업체 연체 가산금리 6월말부터 3%P 이내 제한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연체가산이자율상한선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대부업체는 그동안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 연체가산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현대차·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 '2019 iF디자인상'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6개 차종이 '2019 iF디자인상'을 받았다.

현대차는 콘셉트카 '르 필 루즈(Le Fil Rouge)'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받는 iF디자인상의 수상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르 필 루즈는 '공통의 맥락'이란 뜻의 프랑스어 관용어로 현대차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테마로 연결됐음을 뜻한다.

기아차는 프로씨드와 씨드 해치백, 씨드 스포츠에디션 등 3개 차종이 수상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작 3종 모두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럽 전략형 모델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콘셉트카 에센시아가 수상 분야에서, 'G70-서울 2017 글로벌 런칭 이벤트'가 이벤트 분야에서 각각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iF 디자인상은 1954년부터 매년 제품과 포장, 커뮤니케이션 등 7개 부문별로 선정하며 제품 디자인 부문은 수송과 레저용품, 컴퓨터, 조명, 기구 등의 세부 분야로 나뉜다. 올해는 출품작 6375개 가운데 66개가 금상을 수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람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7(일) ~ 21(목)
- 전형일: 2019. 2. 22(금)

###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형일: 2019. 2. 22(금)

###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2. 14(목) ~ 20(수)
- 전형일: 2019. 2. 22(금)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